

# 2019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⑤	2	④	3	⑤	4	②	5	③
6	③	7	⑤	8	⑤	9	⑤	10	③
11	④	12	①	13	④	14	④	15	②
16	①	17	④	18	③	19	③	20	④
21	①	22	④	23	②	24	①	25	①
26	④	27	③	28	②	29	①	30	①
31	②	32	①	33	③	34	⑤	35	④
36	②	37	③	38	③	39	②	40	②
41	④	42	①	43	③	44	⑤	45	④

#### 해설

#### 1. [출제의도] 강연 계획 파악

강연자는 ‘자발적 고독’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고 있지만, 실천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3문단에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4문단에서 창의력 증진, 스트레스 조절 등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자발적 고독’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자발적 고독’과 타인에 의한 ‘고립’의 차이점을 제시하며 학생들이 ‘자발적 고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

강연자는 마지막 문단에서 ‘1인분의 시간’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현대인들에게 ‘자발적 고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3.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

‘청중 5’는 강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강연자에게 요청함으로써, 강연을 들은 후 생긴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② ‘청중 2’는 강연 내용 중 ‘유도된 심상’과 관련된 자신의 긍정적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③ ‘청중 3’은 강연 내용이 긍정적 측면으로만 치우친 것은 아닌지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자발적 고독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④ ‘청중 4’는 ‘자발적 고독’이 피로, 불안감, 답답함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 ‘바쁜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강연자의 의도를 확인한 뒤 이에 동조하고 있다.

#### 4. [출제의도] 토의의 내용과 전략 평가

㉠은 포스터 형식으로 안내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행사의 취지 및 참가 방법을 홍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학생 3’의 의견을 듣고, 해당 내용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안내 게시물 형식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전달하는 발화이다. 따라서 ㉠은 ‘학생 3’과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 3’에 동의하는 발화라 볼 수 있다.

① ‘학생 1’은 홍보용 안내 게시물의 유형부터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학생 2’는 ㉠에서 홍보용 안내 게시물의 유형을 먼저 결정할 경우, 안내 게시물에 들어갈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며 ‘학생 1’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③ ‘학생 3’은 교목이나 교화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행사의 제목을 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학

생 2’는 ㉡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이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교화가 아닌 교목을 활용하여 제목을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④ ‘학생 1’은 포스터에 ‘나눔 장터’와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학생 2’의 의견에 대해 학생들이 행사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 의견을 수용하여 ‘학생 3’은 ㉢에서 포스터에는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해서 제공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⑤ ‘학생 3’은 ㉢에서 ‘나눔 장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 단체들의 이름을 밝히자는 자신의 제안에 대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있다.

#### 5. [출제의도] 담화의 유형과 성격 파악

‘학생 1’은 [A]의 세 번째 발화에서 행사 개최 시기와 장소 및 행사의 취지와 물품 판매 방법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안내 게시물 형식을 찾아보자는 ‘학생 2’의 제안에 대해 행사 취지와 물품 판매 방법은 안내 글 형식으로, 행사의 개최 시기와 장소에 관한 안내는 포스터 형식으로 게시하자는 의견을 말하고 있다. 또한 ‘학생 1’은 [B]의 두 번째 발화에서 포스터 그림의 양쪽에 ‘나눔 장터’와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학생 2’의 의견에 대해 학생들이 행사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① [A]에서 ‘학생 1’은 홍보용 안내 게시물의 유형부터 정하자는 의견을 말하고 있으며, ‘학생 2’는 안내 게시물에 들어갈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며 ‘학생 1’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이를 듣고 ‘학생 3’은 ‘밤샘 독서’ 행사를 언급하며 ‘학생 1’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 ②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제시한, 교목이나 교화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행사의 제목을 정하자는 의견과 포스터 중앙에는 행사 진행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자는 의견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3’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④ [B]에서 ‘학생 3’은 포스터 그림의 양쪽에 ‘나눔 장터’와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면 학생들이 행사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학생 1’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을 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A]에서 ‘학생 3’은 행사의 취지와 물품 판매 방법을 안내하기에는 포스터 형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학생 1’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⑤ [A]에서 ‘학생 3’은 ‘밤샘 독서’ 행사를 언급하며 ‘학생 2’의 의견에 대해 반대하고 있을 뿐,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B]에서도 ‘학생 3’은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 6. [출제의도] 작문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

안내 포스터의 중앙에 행사 진행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자는 (가)의 토의 내용과 달리 ㉢에는 학교 건물과 느티나무만 그려져 있다. 그러므로 ㉢ 부분은 나눔 장터의 개최 시기와 목적이 드러나는 그림이 아니라 행사 진행 모습이 담긴 그림으로 교체해야 한다.

① ㉠에는 대구법과 연쇄법을 활용한 ‘~을/를 통한 ~의’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며 행사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행사의 의의를 소개하자는 (가)의 토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②, ④ ㉠에는 ‘벼룩시장’과 ‘먹거리 시장’, ‘체험 마당’ 등으로 ‘나눔 장터’와 관련된 세부 프로그램을 항목화하여 제시하고 있고, ㉡에는 행사 개최 일시와 장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행사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가)의 토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⑤ ㉢에는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작년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한 행사 참여 방법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7.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

(나)의 2문단에서 판매 물품을 등록하는 방법과 물품 등록 시 유의점 등에 대해서는 안내하고 있으나, 참가 자격에 대해서는 안내하고 있지 않다.

① (나)의 1문단과 3문단에서 ‘나눔 장터’ 행사의 수익금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기부금의 사용 계획을 알지 못해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지 않은 판매자가 다수 있었다는 설문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② (나)의 2문단에서는 동·식물이나 고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전자 제품,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물품은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구매한 곳이 시드는 바람에 판매자와 언쟁을 벌인 경우가 있었다는 설문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③ 1문단에서는 ‘나눔 장터’의 개념을 밝히고, 2문단에서는 ‘나눔의 삶을 실천’한다는 행사 개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행사의 취지를 모르는 학생이 많았다는 설문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④ (나)의 3문단에서는 구름다리 미술 전시회, 먹거리 시장, 체험 마당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적었다는 설문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 8.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

건의 내용의 실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그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① ‘먼저’, ‘두 번째’와 같은 담화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선생님과 함께 ~ 기억하시지요?’라는 물음의 형식을 통해 독자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③ 원활한 동아리 활동의 진행이라는 건의 목적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으로 무한 상상실 설치, 전문가와의 연계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건의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④ 무한 상상실과 같은 공간의 부족,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의 부족이라는 문제 상황을 언급하여 건의 내용의 적절성을 강조하고 있다.

#### 9.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

‘학생의 초고’에서 학생은 발명 동아리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무한 상상실 설치를 건의하고 있을 뿐, 디지털 제작 도구를 활용한 발명품을 제작하기 위해 발명품을 상품화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① (가)-1은 ○○광역시 소재 학교 내 무한 상상실 설치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주는 자료로, 이를 근거로 우리 학교에서도 무한 상상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각할 수 있다. ② (가)-2를 통해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된 요인은 ‘동아리 특성에 맞는 활동 공간 부족’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발명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한 상상실과 같은 활동 공간이 필요함을 강조할 수 있다. ③ (다)는 학생 인터뷰 자료로, 발명품 제작 활동이 학생의 적성과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됨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지원 확대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언급할 수 있다.

#### 10. [출제의도] 조건에 따른 글쓰기

‘현실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어 있고, 공작 공간 및 전문가와 관련한 건의 내용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① ‘상상력의 싹을 틔우고’라는 비유적 표현은 사용하고 있으나, 두 가지 건의 내용은 모두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견인차’라는 비유적 표현, 창의성 증진이라는 긍정적 기대는 드러내나,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관련 건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④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관련 건의 내용과 그에 따른 긍정적

기대도 언급하지 않았다. 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공간 공간과 관련한 건의 내용과 그에 따른 긍정적 기대도 언급하지 않았다.

11. [출제의도] 사동 표현의 특징 파악

㉠의 '선생님께서 ~ 읽히셨다.'는 접사에 의한 사동 표현이고 '선생님께서 ~ 읽게 하셨다.'는 '-게 하다'에 의한 사동 표현인데, 이는 모두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도록 시키는' 간접 사동의 의미로만 해석된다.

① ㉠의 '나뉘다'는 '나뉘다'라는 형용사에 사동 접사 '-추-'가 결합된 사동사이다. ② ㉠은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 서술어가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에서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로 바뀌었다. ③ '이삿짐이 방으로 옮다'로 쓸 수 없으므로 ㉠의 경우 대응하는 주동문을 만들 수가 없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⑤ ㉠에서 자동사가 서술어로 사용된 주동문의 주어 '아가'는 사동문에서 목적어로, 타동사가 서술어로 사용된 주동문의 주어 '철수'는 사동문에서 부사어로 바뀌었다.

12. [출제의도] 음운 변동의 이해

'산란기[산:란기]'는 역행적 유음화가, '표현력[표현력]'은 'ㄹ'의 비음화가 일어난다.

② '줄넘기[줄림기]'는 순행적 유음화가, '입원료[이빈료]'는 'ㄹ'의 비음화가 일어난다. ③ '결단력[결탄력]'과 '생산량[생산량]'은 모두 'ㄹ'의 비음화가 일어난다. ④ '의견란[의:견란]'과 '향신료[향신료]'는 모두 'ㄹ'의 비음화가 일어난다. ⑤ '대관령[대:관령]'은 역행적 유음화가, '물난리[물랄리]'는 역행적 유음화와 순행적 유음화가 모두 일어난다.

13. [출제의도] 용언의 활용 방식 이해

㉠ '들르다'는 '들르- + -어'가 '들러'로 나타나 '따르다'와 마찬가지로 활용할 때 어간에서 '-어'가 탈락하는 규칙 활용이다. ㉡ '푸르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어미 '-어'가 '-러'로 변화하는 불규칙 활용, ㉢ '묻다[問]'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이 '물-'로 교체되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①, ② '잡그다'와 '다다르다'는 '잡가'와 '다다라'로 활용하므로 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지만, ㉣과 ㉤이 적절하지 않다. ③, ⑤ '부르다'와 '머무르다'는 '불러'와 '머물러'로 활용하므로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용언의 활용 이해

'방'은 'ㅍ' 또는 'ㅍ' 앞에서는 반모음 [w]로 변화하고, '-어'와 결합하여서는 'ㅍ'로 바뀌었으므로 '즐거븐'은 현대 국어의 '즐거웁'으로 나타난 것이다.

① '지서'는 '짓다'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짓-'으로 교체된 활용형이다. ② '즐거븐'은 '즐겁다'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즐겁-'으로 교체된 활용형이다. ③ 'ㅍ'이 소실되어 '지서'는 현대 국어에서 '지어'로 나타난 것이다. ⑤ 중세 국어 '변하야'와 현대 국어 '변하여'는 활용할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진 것에 해당한다.

15. [출제의도] 사전 활용의 적절성 파악

㉠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대략'의 뜻을 지닌 '한<sup>01</sup>[4]'이므로 관형사이고, ㉡은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한<sup>02</sup>[2]'이므로 명사이다.

① '한 이불'을 덮고 잔다는 것은 '같은 이불'을 덮고 잔다는 의미이므로 ㉢은 '한<sup>01</sup>[3]'이다. ③ ㉣은 '한<sup>01</sup>[3]', ㉤은 '한<sup>02</sup>[1]'로, '한<sup>01</sup>'과 '한<sup>02</sup>'는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되었으므로 동음이의 관계이다.

④ ㉥의 '한'은 뒤에 오는 체언 '결음'에 수량의 의미를 더한 경우이므로 '한<sup>01</sup>[1]'에 해당한다. ⑤ '한 친구'와 '한 마을'의 '한'은 모두 '어떤'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둘 다 '한<sup>01</sup>[2]'에 해당한다.

\*\* 사회 \*\*

□ 출전: 김권중, <재무제표 분석과 가치평가>

16.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

1문단에서 재무제표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3~6문단에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듀퐁 ROE 분해' 방법을 예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③ 7문단에서 재무비율 분석의 의의를 밝히고 있으나, 듀퐁사가 ROE 분해를 창안한 과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 재무제표를 수익성과 효율성, 안정성의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는 있으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의 변화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17.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6문단을 통해 기업의 안정성 지표를 나타내는 것은 재무레버리지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4문단에서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은 매출액순이익률이라고 했으며, 이는 수익성 지표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재무비율 분석이 필수적인데, 재무비율 분석은 재무제표를 활용해야 하므로 적절하다. ② 매출액순이익률을 알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과 매출액을 알아야 하는데,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포괄손익계산서를 활용하면 매출액순이익률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듀퐁 ROE 분해를 통해 기업의 수익성, 효율성, 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5문단에서 자산회전율이 높으면 기업의 자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18.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

재무레버리지는 평균총자산을 평균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이므로 평균자기자본이 일정할 경우 부채가 증가하면 자산이 증가하게 되므로 재무레버리지는 높아진다.

① 부채가 일정할 경우 평균총자산이 증가하면 기업의 재무 안정성이 높아지므로 재무레버리지는 낮아진다. ② 부채가 일정할 경우 평균자기자본이 증가하면 재무레버리지는 낮아진다. ④ 6문단에서 재무레버리지가 높을 경우 그 기업은 금리 인상에 따른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으므로 평균자기자본이 일정할 경우 재무레버리지가 낮아진다는 것은 부채가 감소함을 의미하므로 금리가 인상되어도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⑤ 평균총자산이 일정할 경우 평균자기자본이 증가하면 부채가 감소하므로 재무레버리지는 낮아진다.

19.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평균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므로 ㉠은 2.5(500/200)회이다. 2018년의 B기업의 자산회전율은 2회이므로 B기업보다 A기업의 자산이 2배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① 매출액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므로 ㉡은 4%(20/500×100)이다. ② A기업의 매출액순이익률은 4%로 2018년의 B기업 대비 낮는데, 이는 2018년 A기업과 B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서로 동일하나 A기업의 매출액이 높기 때문이다. ④ 재무레버리지는 평균총자산을 평균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므로 ㉢은 2(200/100)이다. 한 기업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재무레버리지를 산업별 평균값이나 다른

기업과 비교해야 한다고 하였다. ⑤ 자기자본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을 평균자기자본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환산한 값으로, 또는 매출액순이익률과 자산회전율을 그리고 재무레버리지를 곱한 값으로도 구할 수 있으므로 ㉣은 20%(20/100×100 또는 4×2.5×2)이다.

2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

수익성 지표는 매출액순이익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2018년 B기업의 매출액순이익률은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므로 B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수익성 지표만을 중시한다면 2019년에는 B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및 기타 비용을 전부 차감한 금액은 당기순이익이다. 2018년 B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억 원으로 2017년에 비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주주가 투자한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 지표는 자기자본순이익률로, 2018년 B기업의 자기자본순이익률은 40%로 2017년에 비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③ 안정성 지표는 재무레버리지를 통해 알 수 있는데, 2018년 B기업의 재무레버리지는 4로 2017년에 비해 높아졌으므로 안정성 지표만 중시하는 투자자라면 2019년에는 B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⑤ 자산의 효율적 이용은 자산회전율을 통해 알 수 있는데, 2018년 B기업의 자산회전율은 2회로 2017년에 비해 높아졌으므로 자산의 효율적 이용만을 중시하는 투자자라면 2019년에는 B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고 할 것이다.

\*\* 현대시 \*\*

□ 출전: 정지용, <나비>

김기택, <얼음 속의 밀림>

21.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

(가)에는 '후 두 두 두', '징징', '활 활' 등의 음성 상징어가 나타나 있다. '후 두 두 두'를 통해 '낙수 짓는', 즉 비가 유리창을 때리고 있는 시적 상황을, '징징'을 통해 화자가 '주먹'으로 '열리지 않는 창'을 치고 있는 시적 상황, 그리고 '활 활'을 통해 불이 피워져 있는 시적 상황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②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구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 없어라'를 통해 드러나는 연민에서 '무서워라'를 통해 드러나는 두려움으로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나)에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정서의 변화도 드러나고 있지 않다.

2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보기>를 통해, 춥고 비가 내리는 창밖에 붙어 있는 나비를 '가엾'다고 여기는 것과 창밖의 나비가 '검은 눈을 잔나비처럼 뜨지나 않을까 무서워'하는 것은 나비를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으로, 산장 안의 온기를 '부러웁'게 여기는 것은 화자를 바라보는 나비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나비는 화자의 또 다른 자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나비에 대한 연민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나비가 '날개가 찢어진 채 검은 눈을 잔나비처럼 뜨지나 않을까' 무서워하는 것은 자신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산장 안의 온기에 대한 부러움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바람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러워하는 나비의 모습과 무서워하는 화자의 모습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더 큰 고통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현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성찰적 자세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화자는 시대적 현실로 고통받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낙수 짓는’, 즉 비가 오는 창밖에서 추위에 떨며 산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가상의 존재인 나비에 투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나비를 보며 ‘가없어라’라고 탄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나비의 존재를, 실재하지 않는 대상을 의미하는 ‘환상’이나 그림에 해당하는 ‘자재화’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나비가 가상의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23. [출제의도] 시상 전개 방식 파악**

[B]를 보면, 얼어붙게 만드는 ‘결빙의 힘’에 ‘있을 피우고 꽃을 터뜨리는 생명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했으므로 얼음의 모순적 속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는 해석은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호트러짐과 자유로움을 / 정교하고 엄격한 계율로 만든 것은 얼음에 내재된 호트러짐과 자유로움, 즉 얼음에 내재된 식물적 본능이, 엄격한 계율, 즉 결빙의 과정을 통해 걸음으로 보기에 고정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빙을 억압으로, 식물적 본능을 저항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A]에는 무생물에 해당하는 ‘성에’를 보며 생물에 해당하는 ‘하얀 식물’을 유추해 내는 참신한 발상이 나타나 있다. ④ [D]에서 화자는 눈앞의 ‘성에’에서 발견한 속성을 ‘지상의 모든 얼음’으로 그 범위를 넓혀서 적용하고 있으며, 그 ‘푸른 얼음’ 속에서 다시 ‘울창하게 퍼져 있는 / 또다른 원시림’을 발견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뛰고 날고 헤엄치며 노는’은 역동성을 잘 드러낸 표현에 해당한다.

**24. [출제의도] 소재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①은 화자가 ‘나비’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또 ‘나비’도 산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차단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①은 ‘성에’를 볼 수 있게 만드는 매개로서 작용하고 있을 뿐, 두 공간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다.

**\*\* 고전 소설 \*\***

□ 출전: 작자 미상, <정을선전>

**25.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

정을선은 유모를 통해 춘연의 억울한 죽음을 알게 된 후 원귀가 된 춘연을 위로하고자 춘연을 찾아와 만남을 시도한다.

② 정을선은 익주자사에게 관자를 보내 그를 유승상의 부중으로 불러 자신이 정을선이 맞다는 것을 춘연에게 밝혀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③ 유승상은 딸이 죽은 이유를 알고자 노 씨의 시비를 심문하고 있지만 그가 죄상을 털어놓지 않아 형벌을 주고 있다. ⑤ 춘연의 빈소 앞에서 교지를 읽은 사람은 유모가 아닌 언관이다.

**26.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

㉠은 오랫동안 밀폐되어 있던 춘연의 방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것일 뿐, 정을선에게 닥칠 위기 상황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27.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춘연이 거절의 의사를 밝힌 이유는 비록 자신이 혼령이지만 남편이 아닌 외간 남자와 한 공간에 함께 있을 수 없고 또 자신과의 만남을 요구하는 객이 정을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② 정을선은 춘연이 원귀가 된 사연을 유모에게서 전해 들은 후 자신의 과오를 깨닫게 되고 이에 춘연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④ 춘연은 천자에게 직접 교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씻게 된다. 정을선을 받아들이는 춘연의 모습은 그의

원한이 풀렸음을 의미한다. ⑤ 정을선이 춘연의 환생을 위해 약을 찾아 나서는 것에서 춘연이 가족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 인문·예술 \*\***

□ 출전: 정인하, <길 들뢰즈의 ‘주름 Pli’ 개념과 랜드스케이프 건축>

**28.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근대 철학은 대상의 고정된 진리, 즉 변하지 않는 진리인 동일성을 찾으려 했고, 들뢰즈는 대상들이 관계를 맺으며 변화하는 속성을 주름을 통한 생성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① 3문단에서 들뢰즈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고정적 본질을 중시했던 근대 철학에서는 생성의 개념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대상과의 관계에 관한 진술은 들뢰즈의 사상과 관련된 것으로 근대 철학과는 관련이 없다. ④ 들뢰즈는 대상의 차이를 본질에 종속시켰다는 점에서 근대 철학을 비판했다. 들뢰즈는 동일성의 추구를 비판하고 대상 간의 차이를 중시했기 때문에 동일성을 차이에 종속시켰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근대 철학은 고정된 본질인 동일성을 추구하였지만 들뢰즈는 대상의 의미가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하였다.

**29. [출제의도] 핵심 개념 파악**

3문단에서 주름은 대상 자체의 내재적 원인에 의해 혹은 차이를 지닌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차이를 만들어 내며 생성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주름이 내재적 원인에 의해 완성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3문단에서 주름은 대상과 대상이 연결되어 서로를 변화시키는 생성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③ 3문단에서 주름이 다른 대상과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2, 3문단에서 새롭게 생성된 것은 새로운 의미를 지니며 생성은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통한 주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⑤ 3문단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 대상들이 새로운 주름을 계속해서 생성한다고 했으므로 주름이 서로를 변화시키며 연속적으로 만들어 진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30.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주름진 곡선은 건물의 표면을 형성하면서도 내부로 이어져 내부의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랜드스케이프 건축에서 대지와 건축은 서로 능동적 존재로서 만나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지 건물이 대지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②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대지와 건물이 구분되지 않거나 건물 자체가 대지를 완전히 덮어서 연속된 표면을 이룬다고 했는데, DDP 역시 건축이 대지를 덮어 건물과 대지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연속된 표면을 이루고 있다. ③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공간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 없이 이어지게 하여 외부로 향한 시선과 내부로 향한 응시를 동시에 담아내고자 하는데, DDP 역시 외부에서 내부로, 내부에서 외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므로 시선과 응시를 모두 경험할 수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④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대지와 건물, 건물과 건물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는데, DDP 역시 지하철역을 DDP의 입구와 이어지도록 하여 통합된 공간으로 보고자 하였다. ⑤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공간의 성격을 고정하지 않는데, DDP 역시 공간들이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으므로 성격을 고정하지 않았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31.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

대지와 구분되어 비연속적인 표면을 이룬다는 ②의 설명은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특성이 아니다.

① 소쇄원의 길은 기존의 지형 및 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면서 형성된 것이므로 기존의 자연 환경과 관계를 맺으며 생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소쇄원의 마당은 통로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자연을 완상하거나 놀이를 즐기는 공간으로도 활용되므로 성격이 고정되지 않은 잠재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④ 들어열개문은 광풍각의 안과 밖의 경계를 없애면서 자연을 내부로 끌어들이기 있으므로 광풍각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들어열개문은 문짝을 닫으면 방과 마루가 독립된 공간이 되지만, 문짝을 접어 올리면 방과 마루가 하나로 연결되기도 하므로 방과 마루의 경계가 모호해진다고 볼 수 있다.

**32.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도출’은 ‘어떤 생각이나 결론·반응 따위를 이끌어 냄.’이라는 뜻이다.

**\*\* 기술 \*\***

□ 출전: 한상욱, <양자암호통신 개요 및 기술동향>

**33.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

제시문에서는 RSA 알고리즘과 양자암호통신의 비밀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를 만드는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따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 질문의 답이 제시되었다는 점검 결과는 적절하지 않다.

① 암호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전자 상거래 과정은 본문의 내용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 3문단에서 대칭키 방식과 공개키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 4문단, 6문단에서 각각의 암호통신 방식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암호통신 방식에 따른 방법의 차이점이 제시되어 있다. ⑤ 각각의 암호통신 방식이 실생활에 적용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지 않다.

**34.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

3문단에 RSA 알고리즘의 암호·복호화 속도가 느린 이유는 공개키와 비밀키를 생성하는 연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암호·복호화 키를 나누어 갖기 때문에 암호·복호화 속도가 느리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공개키 방식은 수신자가 공개키와 비밀키를 미리 생성하여 공개키는 송신자에게 공개하고 비밀키는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공개키 방식에서 공개키와 비밀키를 생성하는 주체는 동일하다. ② 4문단에서 양자암호통신은 수학적 복잡성에 의존하지 않고 단일광자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발전하더라도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도청자가 단일광자 자체를 가로챌 때 양자의 ‘중첩’ 특성으로 인해 단일광자와 동일한 상태의 광자를 보낼 수 없어 도청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RSA 알고리즘의 경우 암호화된 문서가 유출되어도 현재의 컴퓨터 성능으로는 비밀키를 유추하는 데 비현실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므로 비밀키를 다시 생성할 필요는 없다.

**35. [출제의도]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2문단에서 ㉠은 송신자가 비밀키를 알아야 암호화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 또한 4문단에서 비밀키를 안전하게 나누어 가진다고 서술되어 있고 6문단에 BB84 프로토콜로 만들어진 측정값을 비밀키로 공유한다고 했으므로 송신자가 비밀키를

알아야 암호화가 가능하다. 반면 ㉔은 송신자가 공개키를 이용해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이므로 송신자가 복호화를 위한 비밀키를 알 필요가 없다.

① 2문단에서 ㉑은 별도의 비밀키 분배 과정이 필요 없는 ㉔에 비해 송·수신자가 비밀키를 미리 분배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키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㉔의 하나인 RSA 알고리즘의 경우 복잡한 연산 과정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4문단에서 ㉔은 수학적 복잡성에 의존하지 않고 광자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㉔이 다른 방식에 비해 수학적 복잡성에 더 많이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③ 2문단과 4문단에서 ㉑과 ㉔은 비밀키를 나누어 갖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2문단에서 ㉔은 별도의 비밀키 분배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㉔은 별도의 비밀키 분배 과정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5문단에서 BB84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수평 편광을 X 편광필터를 이용하여 측정하면 대각 편광이나 역대각 편광으로 잘못 측정된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X 편광필터를 이용할 경우 수평 편광을 측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① 5문단에서 BB84 프로토콜은 암호·복호화 과정이 아니라 키 분배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5문단에서 편광된 광자 또한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 '중첩' 특성을 갖는다고 했으므로 광자가 다시 편광필터를 통과하더라도 여전히 '중첩'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단일광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이므로 단일광자에 실린 정보의 일부를 가로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단일광자 자체를 가로채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7.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

제시문에는 송·수신자가 동일하게 사용한 편광 필터의 비트 정보를 공유하면 비밀키로 사용할 수 있는 값을 공유할 수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보기>의 과정에서 누락된 광자를 제외하고 동일한 편광필터를 사용한 2, 6, 8, 9번째 비트 정보에 해당하는 '1101'을 비밀키로 공유할 수 있다.

\*\* 현대 소설 \*\*

□ 출전: 이청준, <시간의 문>

38. [출제의도] 인물을 중심으로 내용 파악

'여자'는 '유종열'의 생존에 대해 묻는 '나'에게 '그냥 그렇게 사라져간 거예요. 이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니깐요.'라고 말한다. '여자'는 사진에 찍힌 그의 모습이 그에 대해 알고 있는 마지막 모습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나'에게 그의 생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시키고 있다.

④ '선장'은 편지를 통해 '유종열'이 실종될 당시의 마지막 순간을 알려주며 '유종열'이 난민선으로 보트를 타고 가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밝히고 있다. '여자'에게 '유종열'을 찾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고 있지 않다. ⑤ '유종열'은 사진작가로서 자신이 사진을 찍으며 겪고 있는 고민을 '나'에게 토로하며 그 괴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예술에 대한 갈등을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민에 대해 말하고 있다.

39.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파악

'여자도 이젠 대답을 굳이 아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는 표현에서 '여자'가 '나'의 질문

에 대한 답을 회피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나' 또한 '여자'의 대답을 듣고 여러 의문을 갖게 되어 말문이 막힌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입을 다물어' 버리는 행동은 상대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나'의 혼란스러운 심리를 반영한 행동이다.

① '나'는 '여자'가 건네 준 사진을 본 후 그 사진이 '또 하나의 수수께끼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사진을 보기도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없어 답답해하는 '나'의 심리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선장'은 '유종열'이 난민선에 간 후 그곳의 상황(외부적 요인)으로부터 겪게 될 신변의 위험을 염려하고 있고, 동시에 유 선생이 난민선으로 간 후 그가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자초할 위험)는 생각이 들어 그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지 않다. ⑤ '보트'를 내려 달라는 유 선생의 요구와 허락할 수 없다는 선장의 의견이 대립하지만 결국 선장이 보트를 내리는 결정을 함으로써 '유종열'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40.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

'선장'이 보낸 '편지'를 통해 '나'와 '여자'는 '유종열'과 관련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다. 그가 사고로 실종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단에 의해 난민선으로 갔던 것임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그의 행위가 그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깨닫게 된다. 이런 점에서 '편지'는 '나'와 '여자'에게 '유종열'의 행적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① '편지'는 '선장'이 '여자'에게 보낸 것이다. '유종열'의 배려와는 무관하다. ③ '편지'는 '나'와 '여자'에게 '유종열'의 실종과 관련된 경위를 알려 준다. '여자'와 '유종열'의 재회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④ 이야기의 초점 인물은 '유종열'이며 작품 내에서 초점 인물이 바뀌지는 않는다.

41.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유종열'이 '사진 같은 건 찍으려 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그가 추구한 예술 세계가 사진 찍기로 인해 무너져 버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괴로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난민선을 마주한 현실에서 자신이 직접 사진기로 사진을 찍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행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① '유종열'은 미래와의 연관을 담아내는 사진을 찍으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워한다. 이는 자신의 사진이 과거의 순간을 단순히 현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 ② '시간의 벽을 뚫고' '대상 안으로 들어가 함께 흐르'는 사진이란 미래와의 연관을 담고 있는 사진이다. 이는 결국 '과거와 현재가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담은 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유종열'은 원하는 사진을 찍지 못해 괴로워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데, '전장터의 참상들이' '무서운 힘으로 맞서 오'는데도 '카메라를 버릴 수 없'었던 것은 이러한 그의 노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⑤ '유종열'은 자신이 찍고자 한 사진을 마지막까지 찍지 못했지만 '난민선을 향해 보트를 저어' 가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사진에 찍힘으로써 결국에는 미래로 흘러가는, 정지되지 않은 시간의 흐름을 담고자 했던 예술가로서의 소명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 고전 시가 \*\*

□ 출전: 작자 미상, <추풍감별곡> 정훈, <월곡답가>

42.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가)에서는 흠모하는 입과 이별한 화자가 부재하는 입을 그리워하는 태도가, (나)에서는 흠모하는 벗을 만날 수 없는 화자가 부재하는 벗을 그리워하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③ (가), (나) 모두 화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

정받지 못한 모습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세상에 대한 화자의 냉소적인 태도도 드러나지 않는다. ④, ⑤ (가), (나) 모두 화자가 사모하는 대상을 지키지 못한 모습과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 태도와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도 드러나지 않는다.

43.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

'추풍(秋風)'은 입과의 이별로 인해 '별회'를 느끼는 화자에게 이별의 정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㉔은 입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자연물로 볼 수 있다.

① ㉑은 입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아니라 입의 부재에서 오는 화자의 막막함을 일부나마 해소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반영된 소재이다. ② ㉔은 입을 원망하는 화자의 심정이 아니라 입과 화자가 나누었던 사랑을 나타내는 시어이다. ④ ㉔은 입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속세에서 벗어나 은둔하는 삶을 사는 벗의 친자연적 삶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⑤ ㉔은 연모하는 입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 아니라 화자가 벗과 함께 있고 싶은 공간이다.

44.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이해

[E]에서는 대상으로 '아해'가 제시되어 있지만 '아해'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이 아니라 화자에게 '술'을 따라 주는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① [A]에서는 '여름 구름이 흩어지고', '찬 기운' 등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여름에서 가을로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② [B]에서는 '정원에 ~ 알리는 듯', '추국에 ~ 머금은 듯'에서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입을 떠나 보낸 화자의 정서와 쓸쓸한 가을의 분위기를 조응시켜 시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③ [C]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가을 잔나비'를 의인화하여 화자의 슬픈 정서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D]에서는 '삼춘에 ~ 꿈이런가'에서 회상의 방식을 사용하여 입과 함께하던 과거와 달라진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외로움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미', '구름'은 작가가 벗을 찾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와 '구름'을 매개로 작가가 추구하는 친자연적 삶의 가치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① 작가는 '월곡'을 '벗'으로 설정하여 그의 충의적 삶과 친자연적인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작가는 자연 속에서 '사념' 없이 살아가는 벗의 맑고 깨끗한 삶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③ 작가는 현실적으로는 갈 수 없는 '구름다리' 위를 '숨' 속에서나마 다녀오으로써 만날 수 없는 벗을 보고 싶은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⑤ 작가는 '나'와 '벗'을 '우리'라는 시어로 표현함으로써 같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의 동질감을 드러내며, '어려운 일'은 듣지도 보지도 말자고 함으로써 혼탁한 현실을 경계하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